다도해의 보석 섬

⑤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반짝반짝 몽돌밭 눈부신 칠산바다의 보물

썰물땐 8㎞ 바닷길 바지락·조개 천지

37가구 주민들 바다 기대어 소박한 삶

최근 '천혜의 자원' 관광지 개발 한창

한 주민이 자갈 해변에서 바지락과 조개 등을 캐고 있다. 공동 어장이지만 관광객이 공짜로 마음껏 캐다 먹어도 된다.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松耳島). 섬 모양이 소 귀처럼 생겼으며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몽글몽글한 조약돌로 가득한 몽돌해변과 썰물때면 바닥이 드러나는 모래등,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백로, 영광칠산도의 괭이갈매기, 저어새 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아래는 맨발로 다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몽돌 해변은 썰물때면 3.5㎞까지 펼쳐진다.

육지로부터 1시간 20분, 그닥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장마인데다 '먼'바다에 들어가 툭하면 뱃길이 끊기는 칠산바다 한 가운데에 들어앉은 섬이라 조마조마했다. 썰물 때면 바닥이 드러나는 '풀등(맛등)'이라 여객선도 수심이 깊은 물길을 찾아 삥삥 돌아야 한다. 다행히'운때'가 잘 맞았다. 6월 말 바다는 잔잔했고 물때도 넉넉했다.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松耳島). 홍농읍 계마항을 빠져나가 칠산바다 한복판으로 1시간 20분, 법성포에서 28.5㎞ 떨어진 거리에 있는 섬이다. 모양이 소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송이도는 한산했다. 고즈넉함이 섬을 휘감고 있었다.

뱃길은 하루 한편 뿐이다. 그것도 오후 시간에만 나갈 수 있어 주민들이 생필품이라도 사려면 꼬박 이틀을 뭍에서 보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나는 승용차도, 뭍에서 가져온 생필품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도 손에 꼽을 정도다.

뭍으로 자식들을 내보낸 것도 이같은 불편함 때문이었을까.

섬에 태를 묻은 이장 김성기(65)씨는 "예전만 해도 자식들 초등학교 보낼 때부터 뭍에서 두 집, 세 집 살림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3000명이 넘게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의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송이도를 찾는다. 뱃길도 이 때면 분주해지고 섬도 북적댄다.

선착장에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몽돌 해변'. 섬 오른쪽으로 길게 3.5㎞, 30㏊가 온통 몽글몽글한 조약돌 천지다. 맨발로 다녀도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둥글둥글하다. 하얀 조약돌은 국내 유명 그릇공장에서 재료로 가져갈 정도로 상품성이 있다. 작은 하얀 잔돌이 반짝이는데다, 인근 괭나무 군락과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풍경은 '그림엽서'나 다름없다.

관광객에게는 아름다고 깨끗한 몽돌이지만 섬에 뿌리를 박고 사는 주민들에겐 다르다. 척박한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썰물때면 이 자갈밭을 따라 하얀 잔돌을 주워 내다팔았고 돌을 헤집어 바지락이나 굴을 캤다. 이렇게 해서 자식들을 뭍으로 유학 보냈고 영광에, 목포에, 광주까지 세 집 살림을 하며 공부를 시켰다.

한 주민은 "예전에는 주민들이 돌을 산처럼 쌓아놓으면 국내 유명 그릇공장에서 재료로 쓴다며 포크레인으로 실어갔다"면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 '무작정 내다 팔아서는 안된다'며 팔지 않기로 한 게 20년쯤 됐다"고 했다.

해변에 돌이 수익원이라면 밭에 넘친 돌은 '골칫거리'였다. 농사지을 땅뙈기를 만들려고 새벽에 소 끌고 지게지고 나서 해질녘까지 괭이질을 해 튀어나오는 돌을 골라냈다. 산중턱 층층 펼쳐진 다랑이논(7.5㏊)과 밭(35㏊)은 이렇게 일궜다.

수십 년 넘게 일군 밭뙈기지만 현재는 칡 넝쿨이 우거진 채 잡초가 웃자란 농경지들이 적지 않다. 논은 대부분 휴경이고 밭도 10㏊가 전부다.

김 이장은 "경지 정리가 안돼 기계도 쓰지 못하는데, 나이든 주민들이 많다 보니 휴경지가 점차 많아졌다"면서 "나도 40년 넘게 지은 논농사를 3년 전 그만뒀는데, 속이 좋지 않더라"고 말했다.

한 때 100가구가 넘었다는 주민들은 고작 37가구 68명. 60대 이상이 절반이 넘고 혼자 사는 노인들만 20개 가구에 이른다. 이러다보니 경작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마을에 흔히 보이던 소도 거의 사라졌다. 경작지가 줄어들면서 소먹이가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마을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가파른 언덕을 넘어서면 저 멀리 '풀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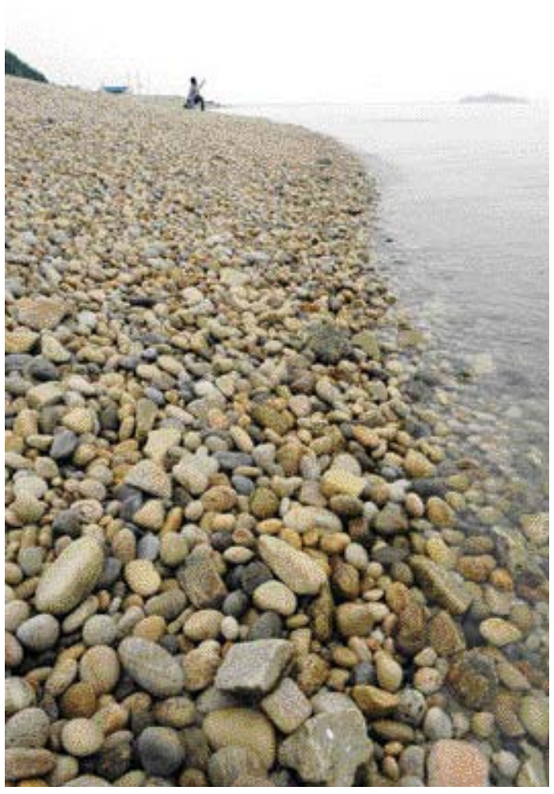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면서 '모래등','맛등'으로도 불리는 곳. 낙조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장소다. 주민들에겐 맛조개와 더불어 대합이 널려 있는 '밭'이다. 이 곳에서 잡은 맛조개를 비롯한 수산물이 최고임은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큰 수익원이다.

해수욕을 즐기는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주민들은 "바닷물이 걷히면 인근 대각이도(0.56㎢)에 소각이도까지 8㎞ 넘게 갯벌이 이어져 하루 종일 풀등을 돌아다니며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갯벌과 모래가 섞인데다, 모래가 물을 먹으면 단단해져서 아이들에게는 놀만한 운동장이 되기도 한다.

주민들이 뒤늦게 소박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고기 잡고 바지락 캐던 몽돌해변, 풀등 등을 천혜의 자원으로 내세워 뭍 사람들을 겨냥한 관광산업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길이 뚫리는 뭍과 달리,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섬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섬의 문화를 지키면서 섬을 살찌우기 위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영광군은 우선, '아름다운 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펜션을 짓고 해변에 나무데크를 설치했다. 수 억원을 들였다가 사실상 방치해놓았던 수영장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지부진



했던 섬을 둘러싼 해안 일주도로 조기 완성 계획도 구상중이다. 바다 속에서 물이 솟는 '약샘'과 섬 주민들만 아는 '8경'도 때묻지 않은 관광 자원으로 손색이없다.

섬 주민들의 인심도 남다르다. 공짜로 관광객들이 공동 어장인 자갈 해변에서 마음껏 자연산 바지락과 조개 등을 캐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넉넉하다.

부족한 점도 있다. '(여객선이) 밑져서 하루 한 편 이상은 못 간다'는 배편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관광객 끌어들인다고 해놓고 배편은 그대로 두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